H

03

현대중공업그룹 웹진 매거진 H

NO.024

〈매거진 H〉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소식과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소통 채널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재미있는, 그리고 마음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 이안 I 일러스트레이터

첫 발행일 2018년 4월 17일
펴낸곳 웹진 편집실
이메일 magazine@hhi.co.kr

이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NSIDE

Feature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손으로 극복 03

People
친환경 5G 전력산업의 최강 에너지솔루션사업자! - 현대일렉트릭 솔루션개발부 07

News
그룹사 주요 소식 10

STORY

Heritage
국내 첫 사계절 잔디구장(서부구장) 개장 - 1996. 3. 22 13

Trend
스트리밍 라이프 16

Health
대한민국을 뒤덮은 코로나19 공포 19

Culture
판소리『춘향가』 속 불후의 명곡, 『쑥대머리』 22

Story +
사우의 글 내 인생의 성악
잡학사전 목소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울림 24

Hstagram
맛있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26

Quiz
3월호 퀴즈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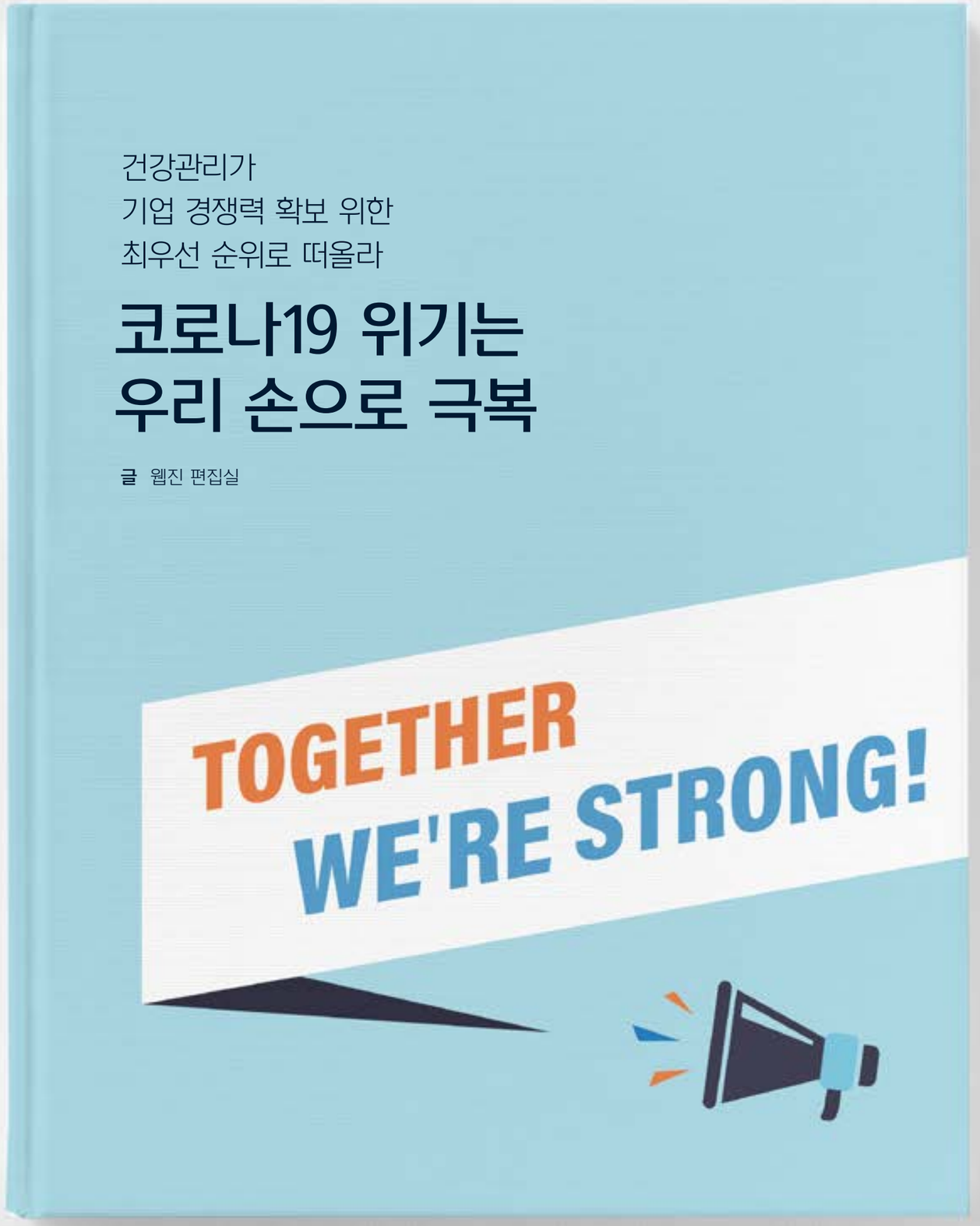
INSIDE

Feature · People · News · Heritage

건강관리가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최우선 순위로 떠올라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손으로 극복

글 웹진 편집실



기업이 예기치 않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경영상 위기를 겪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당장 우리 그룹만 하더라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주력 선종이던 VLCC(초대형유조선) 발주량이 줄어들자 벌크선, 다목적 화물선으로 선종을 다변화해 위기를 벗어난 경험이 있다. 이후 제2차 석유파동, 2008년 일어난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극심한 수주 가뭄도 겪었다. 또, 최근까지 이어져 온 조선경기 불황,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등 숱한 위기를 마주했으며, 그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기존에 겪어왔던 위기와는 다르다. 석유파동, 미중 무역분쟁 등은 구성원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위기였다면, 이번 코로나19는 우리 주변에서 눈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출 자제로 인해 한산한 식당을 목격하고, 잇따른 여행 취소로 타격 받는 항공업계와 관광업계의 뉴스를 매일 접하며 경제 위기의 심각함을 크게 느끼고 있다. 또, 주식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을 기록하는 등 금융도 타격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기계나 산업시설을 직접 파괴하거나 원자재 값을 급등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신 코로나19는 생산에 관여하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빼앗음으로써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노동력 상실로 경제성장 떨어뜨리는 코로나19

우리는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인해 직장이 폐쇄됐다는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다. 직원의 건강이 위협받음으로써 사업장이 가동 중단됨에 따라 매출 및 영업이익에 큰 피해를 입는 것이다.

노동력 상실을 일으키는 감염병은 기존에도 있어 왔다.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지카, 에볼라가 있었으며, 메르스, 사스 등은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신종플루는 북미, 아시아 등을 넘나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어 경제, 산업계의 공포감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확실한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월 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0.3%P(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를 넉 달 만에 크게 낮춘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은 올해 5%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행도 역시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작년 11월 예상했던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소비, 설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은 물론, 수출까지 둔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산부 재택근무, 선택적근로제 확대 등 직원 건강관리 앞장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펜데믹(Pandemic) 선언을 함에 따라 각 기업들은 코로나19로부터 자사 직원을 지켜내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감염병이 노동력을 빼앗음으로써 기업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원 건강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확대, 해외출장 자제, 화상회의 적극 권장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그룹 또한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직원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총 20여만 매의 마스크를 제공했다. 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 식당들을 3부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리 떨어져 앉기' 수칙도 시행해 식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밀접 접촉을 막는 한편, 도시락 지급을 확대해 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자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방 정책과 관련된 유인물을 지속적으로 배포하며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재택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 분당, 용인에 사업장을 둔 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은 지난 16일부터 팀원을 두 개조로 나눠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특히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출퇴근시간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또, 임신부 및 중국 등 해외 출장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출장 자제 권고, 컨퍼런스 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임직원들,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 돕기에 앞장서

우리 구성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헌혈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MOS 임직원들은 두 차례(2월 19일~21일, 3월 5일~6일)에 걸쳐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 등 경영진들이 직접 헌혈에 나서 임직원들의 동참을 이끌었다. 이 봉사활동은 울산 지역의 혈액 수급 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그룹 차원에서 지난 달 27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 원을 기탁했다. 그룹 각 사에서 모은 금액을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에 본사를 둔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 지주 로봇사업부문)도 대구·경북지역에 써달라며 2억 원을 이 협회에 기탁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이 혈액수급 위기 해소를 위해 단체헌혈에 동참했다.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 위기극복 가능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는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근로자 개개인이 지금의 비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의 건강이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 회사의 경쟁력임을 인식해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그룹은 47년 동안 숱한 경영 위기를 겪어왔으며, 그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지금의 현대중공업그룹을 만들어 왔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도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IMF를 조기졸업한 원동력을 말할 때 국민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는 것처럼 훗날 현대중공업그룹에 입사할 후배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위기를 근로자 개개인이 노력해 극복해낸 사례로 언급하길 희망해 본다.

친환경 5G 전력산업시대 최강의 에너지솔루션사업자!

- 현대일렉트릭 솔루션개발부

글 웹진 편집실

Editor's Note |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원이 급증하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의 전기에너지 및 차세대 전력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차세대 5G 전력망으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에너지솔루션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솔루션개발부 직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체수행이 가능한 원팀(One team)과 그 구성원들이 우리의 최고 경쟁력입니다"

- 허원범 이사

안녕하세요. 현대일렉트릭 솔루션개발담당을 맡고 있는 허원범 이사입니다. 우리 솔루션개발부는 국내 최고의 토탈 에너지솔루션사업자로서, 전기의 발전부터 소비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설비 및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5G(5세대) 전력망[1]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전력업계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급증과 효율적 에너지관리에 대한 관심증가로 많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바람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솔루션브랜드인 '인티그릭(INTEGRICT)'을 출시하고, 에너지솔루션사업을 당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산업용 51.5MWh, 고려아연 산업용 150MWh, 서산 태양광용 140MWh, 솔라시도 태양광용 306MWh 등 세계 최대급 규모의 ESS[2]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 최고의 에너지솔루션사업자로서 업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내 유일 ESS 無사고 기업의 자부심

"대체 현대일렉트릭의 비결이 뭡니까?" 최근 잦은 ESS화재로 진땀을 뺐던 배터리업계와 사고조사단으로부터 참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고도 단 한건의 화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ESS는 대다수가 리튬이온배터리로, 에너지 손실이 적어 가장 경쟁력있는 타입의 배터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ESS는 전기를 화학적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며, 고밀도의 에너지가 축적된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SS 공사에서는 전기·화학·설계·시공 전반의 전문적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부서는 현대중공업 미래기술연구소 전력저장연구실 출신의 배터리 전문 연구원들과 전기전자사업부문 전력제어시스템부의 전기·시공 전문가들이 모인 융합기술그룹입니다. 전기·화학·설계·시공 등 ESS 사업 전반에 대해 최고의 실력을 보유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정도(正道)를 지켰기 때문에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머신러닝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ESS 설비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업계 내 현대일렉트릭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INTEGRICT ESS 모니터링화면

미래 먹거리: 에너지거래와 에너지관리 생태계

현재 전력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요구 증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전기의 대규모 저장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전력에너지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시스템을 구성하는 설비들의 형태와 요구사항이 변화하고, 에너지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정통 전력인프라와 전력기기 공급에 집중해왔던 당사에게도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는 단순 인프라가 아닌 에너지 자체에 집중한 솔루션사업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최대화하고, 전기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인프라·운영시스템 및 운영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능력이기 때문에 주요데이터의 디지털화·클라우드화에 힘쓰는 동시에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에너지 거래와 에너지 관리 생태계에 깊숙이 침투해 당사의 기기 및 산업제어솔루션 등 다른 상품 판매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3]'을 제공하여 고객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돕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요자원 거래시장[4]'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5]'에 중간거래사업자로 진출해 에너지 거래 생태계를 고객에 제공할

1) 5G 전력망(5th Generation Grid): 분산형, 친환경, 직교류혼합망의 3D(Distributed-/Decarbonized-/DC grid)로 대표되는 차세대 전력망이며, 이전 세대 전력계통의 대표기술로는 직류공급(1세대), 교류공급(2세대), 대규모/중앙집중화(3세대), 분산전원/에너지저장장치(4세대)가 있다. 2)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저장된 전기를 필요시 방전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스템 3)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사용을 감시, 분석,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4) 수요자원 거래시장(DR, Demand Response): 고객의 전력사용량 감축을 모집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제도 5)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소규모의 태양광발전, ESS, 전기자동차의 전력공급을 모집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들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현대일렉트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채로운 전문가들이 모인 '원 팀(One team)'

ESS를 활용하는 에너지관리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연구부서와 사업부서가 만났던 2017년 초의 겨울이 생각납니다. 시장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할 때, 금융투자처와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부서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ESS 산업에서 단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고, 에너지솔루션사업 출범 2년 만에 2,186억 원 수주 달성이라는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사업개발부터 실행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단일화된 조직 체계에서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약 30명으로 시작된 우리 부서는 우수한 외부 인재 및 그룹 내 인력을 충원하여 출범 3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다양성과 개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기전문업체로서의 전기전문가, 전기설비전문가 뿐만 아니라, 배터리전문 화학자, 데이터전문가, 전력시장 및 정책전문가, 건축토목전문가, 시스템개발자 등 다양한 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사업의 개발-금융-영업-설계-제작-실행까지 원팀(One team)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각과 전문역량은 에너지 생태계 구축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우

박준영 대리

현재 본인의 업무

저는 우리 주력사업인 ESS의 EPC공사수행을 하고 있으며, 주로 전기설계와 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전계장설계 출신인 저는 대형공사 특성상 한 분야의 설계만을 담당했던 이전 부서와는 달리, 솔루션개발부로 전입 온 이후 토목, 건축, 전기 등 다양한 공종과 업무의 스펙트럼을 경험하며 제 업무에 큰 매력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때

EPC공사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만 합니다. ESS사업에서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수배전반, EMS 등의 설비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 설비들이 도면 그대로 현장에 설치되고, 첫 운전되는 시운전 순간이 가장 뿌듯합니다. 현장 파견 중에는 많은 고단함도 있지만 팀원과 이런 순간을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ESS였던 고려아연 현장은 첫 파견이어서 미숙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팀원들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지었고, 뒤이은 현대미포조선, 서산태양광 파견현장은 전기, 통신, 설치 등 많은 부분을 몸소 느끼며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팀원들과 서로 도우며 현장에서 성장하는 제 자신을 볼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목표

전기설비분야의 핵심인력이 되어 부서 내 다양한 전문 인력들과의 협업에서 시너지를 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설계 및 시공을 넘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부딪히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우리 회사와 부서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부서의 일원으로서 바라는 점

인류 역사에 많은 변화와 편의를 가져다 준 '전기'는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편의를 더욱 다양한 형태로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솔루션산업에 있어 그 영향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전문가들로 어우러진 우리 부서가 성공적이었던 ESS 사업을 초석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선도해 우리 회사의 위상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룹사 주요 소식

현대중공업그룹

초대형 LPG선, 중형 PC선 연달아 수주

현대중공업그룹이 초대형 LPG선과 중형 PC선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KSS해운과 910억 원 규모의 8만 4,000입방미터(㎥)급 초대형 LPG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30미터, 너비 32.3미터, 높이 23.8미터로, 올해 9월 건조를 시작해 2021년 8월 말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부터 KSS해운이 발주한 LPG선 총 5척을 수주하게 됐다.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소식도 이어졌다.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아시아 선사와 453억원 규모의 5만 톤급 PC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옵션 1척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에 수주한 PC선은 길이 183미터, 폭 32.2미터, 높이 19.1미터로, 오는 7월 건조에 들어가 2021년 6월 말 선주사에게 인도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LPG선과 PC선 모두 현대중공업그룹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며, "올해 LPG선과 PC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

산·학·연과 손잡고 AI 산업 힘 모은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산·학·연과 손잡고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일 KT, 카이스트,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추진 협의체인 'AI One Team'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각 기관은 AI 관련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그룹은 인더스트리 대표기업으로 참여해 스마트조선소,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산업 현장에서의 AI 적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룹사들과 함께 맞춤형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부사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 기관들과 함께 AI One Team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AI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조선, 로봇을 포함한 대한민국 제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5월 KT와 '5G기반 로봇·스마트팩토리 사업 협력'을 체결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해 제조업과 ICT를 융합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 현대로보틱스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12억 기탁

현대중공업그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7일 그룹 1%나눔재단을 통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 원을 기탁하고, 이와 별도로 대구에 본사를 둔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지주 로봇사업부문)도 대구·경북지역에 써달라며 2억 원을 이 협회에 기탁했다. 1%나눔재단 권오갑 이사장은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아픔은 나누고 힘은 합쳐 위기를 이겨내야한다”며, “임직원들의 급여 나눔으로 이뤄진 성금이 이번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대로보틱스 대표 서유성 부사장도 “대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지역 분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활동과 성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세월호 피해자 구난활동과 성금 지원, 일본 대지진, 브라질 홍수 등 그동안 피해를 당한 국내외 지역에 성금 및 장비 지원 등 구호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MOS

단체헌혈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혈액 수급 위기 해소를 위해 다시 한번 헌혈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MOS 임직원들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도움으로 사내에서 2차 단체헌혈을 진행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과 등 경영진들이 직접 헌혈에 나서 임직원들의 동참을 이끌었다. 한영석 사장은 “많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했다”며, “현대중공업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코로나19로 전국의 헌혈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지역 기업체 최초로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당시 헌혈 신청자가 700여 명이 몰려 우선적으로 260명만 헌혈을 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 지난달 현대중공업이 지역 기업 최초로 단체헌혈을 한 이후, 지역의 다른 기업체와 기관들도 잇따라 단체헌혈을 하며 혈액 수급 위기 해소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차세대 함정용 전기추진체계 개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차세대 함정에 대한 기술 개발에 나서며 함정 추진체계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최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국전기연구원 본원에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선급과 함께 차세대 첨단함정의 '전기추진체계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사는 ▲차세대 함정의 전기추진체계 적용 연구 ▲수상함정 LBTS(육상기반시험설비) 구축 ▲함정 전기추진체계 국내 연구회 신규 발족을 위한 상호 협력 등 전기추진 관련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남상훈 특수선사업본부장은 "차세대 함정의 유력 추진체계 중 하나인 전기추진체계 기술 연구를 선도적으로 착수한 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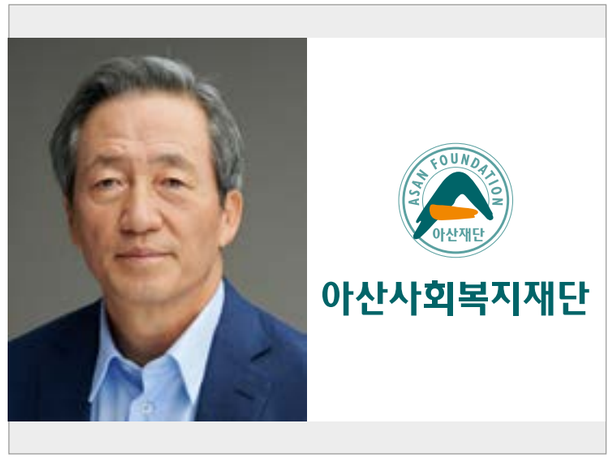
현대차와 '수소연료굴삭기' 개발 나서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 기반의 중대형 건설기계 개발에 나섰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 마북연구동에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와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공동개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파워팩을 포함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설계와 제작을 진행하고, 현대건설기계는 이를 적용한 굴삭기 및 지게차의 설계와 제작, 성능평가를 담당해 오는 2023년부터 관련 제품들을 양산해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기계 황종현 산업차량 R&D부문장(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건설장비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상용화를 위한 인증과 법규 제정의 글로벌 표준화 과정에서도 우위를 점해 수소에너지 건설기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기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재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최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써달라며 재단에서 10억 원, 정몽준 이사장 개인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관련 기관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77년 정주영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의료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최근에는 의생명과학 분야 대학원생, 대학생, 고등학생 등 총 1,240명의 아산장학생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우수인재 양성과 불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장학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74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주목할 만한 이달의 역사

국내 첫 사계절 〈서부구장〉 잔디구장 개장

1996. 3. 2

글 웹진 편집실
공동기획 현대중공업 사내방송국 HHBS

Editor's Note | 이번 3월호는 현대중공업이 1996년 3월 축구의 도시, 울산에 조성한 국내 최초의 4계절 푸른 잔디구장인 서부구장을 소개합니다. 서부구장은 축구장 뿐 아니라 테니스장, 배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중공업이 울산 시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 기부 체납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부구장은 1996년 3월 22일 개장해 20여 년 동안 울산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사랑받고 있다. 8만 1,942제곱미터규모로 약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부구장은 축구장으로 사용하는 국제규격의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을 비롯해 테니스장과 배구장, 농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여 년간 시민 체육시설로 각광
약 1,000여 명 이용 가능

서부구장은 1996년 3월 22일 개장해 20여 년 동안 울산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사랑받고 있다. 8만 1,942제곱미터(약 2만 5,000평) 규모로 약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부구장은 축구장으로 사용하는 국제규격의 천연잔디구장(가로 80미터, 세로 115미터)과 인조잔디구장(가로 72미터, 세로 110미터)을 비롯해 테니스장(4면)과 배구장(2면), 농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부구장은 1990년 강원도에서 울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울산현대축구단의 전용 연습 경기장을 마련하고 울산 동구 지역민들의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훈련캠프로 사용되었으며, 울산과학대학 여자축구부의 상시 훈련장, 국가대표 선수들은 물론 청소년 대표팀을 비롯한 각 축구팀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

서부구장의 바로 옆에는 축구 선수 전용숙소인 현대스포츠클럽하우스가 있어 최적의 환경을 갖춘 축구캠프로 평가받고 있다. 2002년 5월 개장한 클럽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시청각실, 휴게라운지, 인터넷실, 락커룸, 물리치료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팀미팅실, 탁구장, 당구장 등 선수들의 휴식과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축구 도시로 불리는 울산광역시는 조기축구팀 3,000여 개와 국제 규격의 축구장만 총 39면(천연잔디구장 23면, 인조잔디구장 16면)을 갖추고 전국 최대 규모의 축구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부구장은 단연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로, 연간 180여 회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천연잔디구장(국내 최초 사계절 푸른 잔디)과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다.

서부구장은 한·일간 2002년 월드컵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 1995년 국내 처음으로 '켄터키 블루 글래스'와 '라이 글래스'라는 서양잔디를 파종, 식재에 성공한 국내 유일의 축구장이다. 켄터키 블루 글래스와 라이 글래스는 추위에 강한 한지형 잔디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종으로, 늦은 겨울까지 녹색을 유지하며 회복력이 빠르고 밀도가 높아 현재 축구장, 야구장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축구 본고장인 영국 등에 연구팀을 보내 면밀한 검토 끝에 사계절 푸른 잔디 축구장을 탄생시켰다.

사계절 천연잔디, 월드컵 대표팀 선전에도 기여

우리 대표팀이 프랑스 월드컵 예선 중 일본과의 한판 경기와 우즈베키스탄과의 일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서부구장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당시 축구계의 평가였다. 이곳 잔디는 짙푸른 색깔에 질감마저 부드럽고 조밀해 경기 중 슬라이딩 등으로 넘어져도 부상할 위험이 적어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당시 대표팀의 골잡이였던 최용수 선수는 "서부구장에서 연습하면 볼 바운딩 감각이 좋아 오랜 시간 연습해도 피곤하지 않고 컨디션 유지에도 좋다"라고 말했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예선 B조에 속했던 스페인은 2002년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 서부구장을 훈련 캠프로 이용한 바 있다.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완벽한 시설 인프라가 스페인 대표팀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서부구장에서 훈련한 스페인 대표팀은 좋은 성적으로 8강까지 진출했고 8강전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으로 선전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에 승부차기(3:5) 끝에 패했다.

▲ 스페인축구단 입촌식

▲ 2016년 사내축구대회

더 보기

Tip. 서부구장,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새납길 24(서부동 산 137-1)

이용시간
4~10월 오전 5시 30분 ~ 오후 9시
11~3월 오전 6시 ~ 오후 8시

이용문의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현대중공업 052-202-5996)
인조잔디구장(울산 동구청 문화체육과 052-209-3339)

STORY

Trend · Health · Culture · Story + · Hstagram · Quiz

스트리밍 라이프

글 한은정 | 중앙일보 기자

오늘날 모든 콘텐츠는 저장되지 않고 흐른다.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하던 시대가 불과 10여 년 만에 스트리밍의 시대로 변한 것이다. 스트리밍은 이제 소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군데 머물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소유하기보다 경험을 통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싶어 한다.

STREAMING LIFE

방안 한곳을 가득 채운 카세트테이프·CD·DVD가 취향의 척도이던 시절이 있었다. 음원을 다운로드받아 MP3 플레이어에 담아 듣던 것도 추억이 됐다.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플랫폼에 접속해 음악을 듣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뀐지도 오래다. 스트리밍(streaming)이란 '흐른다'는 뜻으로, 인터넷에서 음악,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콘텐츠 전송방식을 말한다. 1995년 리얼네트워크사가 개발한 리얼오디오에서 첫선을 보였다. 콘텐츠를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료 디지털 콘텐츠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4.5%를 차지한 18~24세였다. 25~34세 연령층이 32.9%로 2위다. 이는 전체 평균인 11.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 빅데이터 분석기업 다음소프트의 생활변화관측소가 내놓은 '2020 트렌드 노트'에 따르면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넷플릭스 브랜드 언급량은 공중파 방송인 SBS, KBS, MBC를 넘어섰다.

콘텐츠에서 시작된 스트리밍은 이제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신의 책 '트렌드코리아 2020'에서 2020년도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스트리밍 라이프'를 선정했다. 음악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재생하는 것처럼 집, 자동차, 가구 등을 소유하지 않고 경험을 더욱 중시하는 삶의 풍조를 뜻한다. 김 교수는 "이제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지가 인생의 풍요로움을 평가하는 새로운 척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스트리밍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다. 그들은 출퇴근 지하철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듣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며 '리디북스'로 책을 읽는다. 스트리밍 라이프는 단기 렌털이나 구독을 바탕으로 더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다. '위워크' 같은 공유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월정액으로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바꿔 타며, 공유 주택이나 체험형 주거 공간을 단기 임대해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잠깐 살아본다.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꽃과 그림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기도 한다. 소유가 아니라 경험한다는 개념은 우리 일상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들의 삶에 서점에서 종이책을 사거나,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는 일은 좀처럼 없다. 문제는 밀레니얼 세대가 시장 주류로 떠오르면서 문화예술계 전반에 피해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교보문고는 신규 매장 출점 숫자가 2017년 전년 대비 7개에서 2018년 2개, 2019년에는 1개로 급속히 줄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극장 수가 2013년 333개에서 2018년 483개로 45% 늘어나는 동안 연간 관객 수는 2억 1,335만 명에서 2억 1,639만 명으로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소유에 대한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들의 소유욕을 채워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 만약에 차를 산다면 사고 나서의 유지 비용도 필요하고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별도로 든다. 따라서 이들은 소유하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에 눈길을 돌린다.

어렸을 때부터 고급 경험을 많이 했던 밀레니얼 세대는 취향의 수준이 높다. 다양하고 더 좋은 경험을 열망하는 욕구가 모두 충족되길 원한다. 갖고 싶은 욕망은 크지만 모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실적인 타협점이 되고 있다. 스트리밍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SNS를 통해 경험과 취향을 자랑하는 환경에서 값비싼 제품 하나를 소유하기보다 매일 다른 경험으로 채워진 일상을 인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어떤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는 유목민의 가치관도 스트리밍 라이프에 영향을 미쳤다. 자유롭게 경계를 허무는 현대인의 삶은 유목민과 비슷한데 어디서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 다른 스트리밍으로 갈아탈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은 스트리밍 라이프로의 전환을 더 가속화시킨다.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 환경이 좋아지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시대다. 한 공간에 모여 있지 않아도 되고, 프리랜서가 증가하며 이동하는 주거 스트리밍이 성장하는 측면도 있다. 유목민의 가치관이 현대인을 정의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소유보다 경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소비 시장에 편입될수록 스트리밍이 가능한 대상과 형태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가족과 친구를 빼고 모든 것을 스트리밍하는 일상이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사고가 중요하다. 기업들은 판매 중심에서 고객 관리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면 이후의 관리는 일차적으로 소비자의 몫이었지만, 소비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아닌 개별 소비자를 위한 큐레이션에도 집중해야 한다. 스트리밍 라이프 시장은 더욱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회원이나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스트리밍 세대는 행복은 소유보다 경험에서 온다고 말할 것이다. 소유권보다는 사용권, 성능보다는 취향,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 성취감보다는 만족감, 결과보다는 과정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과거 수집가들이 다양한 물건으로 벽장을 가득 채웠듯, 인생이라는 큰 책장에 스트리밍으로 모은 경험을 채우는 현대인들의 여정이 시작됐다. Ⓗ

대한민국을 뒤덮은 코로나19 공포

글 김성한 |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림 정민영 | 일러스트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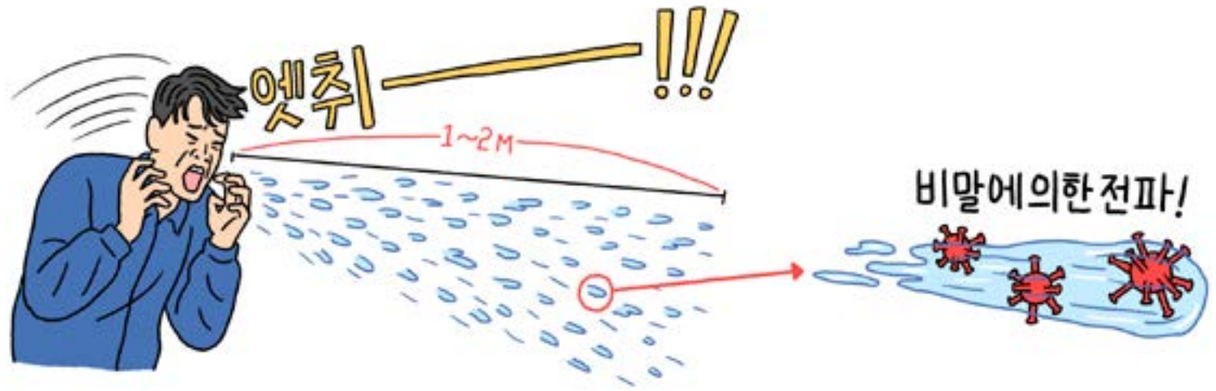
우리나라 정부는 예상보다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자 지난 2월 23일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가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 이후에 11년만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공서, 학교, 법원, 종교단체 등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해 위험성을 좀 더 잘 이해하여 우리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겠다.

아직 확인중인 코로나19의 정체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이러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human coronavirus, CoV)는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사람에게 적응해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만 일으킨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바로 넘어온, 즉 종간 장벽을 넘어온 동물 유래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다. 2003년 박쥐로부터 사향 고양이에게 전파돼 다시 사람에게 전파된 사스, 2015년 박쥐로부터 낙타에게 전파돼 다시 사람에게 전파된 메르스가 대표적인 동물 유래 코로나바이러스다.

이번에 새롭게 출현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는 박쥐와 가장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박쥐 유래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됐지만, 박쥐에게서 바로 사람에게 온 것인지 앞의 예와 같이 중간 숙주로 다른 야생동물이 있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중에서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전자가 78% 일치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부착될 때 사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와 다른 부분이 많다. 따라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얼마나 빨리 전파되고, 어떤 전파 특성이 있고, 임상 증상이 어떠하며, 사망률이 어떨지는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



증상 감기와 유사… 평소 위생에 신경 써야

이처럼 코로나19의 정확한 전파 경로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비말 및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감염 환자가 말하거나 기침을 하면 작은 비말 입자가 1~2미터까지 튈 수 있다. 이때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거나 책상이나 손잡이 등에 묻어 있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접촉해 다시 점막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 소독제 등으로 손 위생에 주의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행히 아직 공기전파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보고는 없다. 다만, 이전에 사스와 메르스 때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기전파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비말 및 접촉에 의해 전파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감기와 유사하다. 초기에 발열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특이한 부분이다. 대부분에서 발열이 있던 사스, 메르스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 외 마른기침, 몸살, 급성무력,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즉 병의 초기에 발열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감기와 유사하게 경한 증상이 있다가 발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전파 사례와 바이러스 배출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증상이 경미한 초기부터 바이러스 배출이 많아서 사스, 메르스와 달리 병의 초기부터 전파력이 큰 것이 코로나19의 특징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경우 발열과 같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한 증상부터 전파될 수도 있다. 또한, 증상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서도 전파된 사례가 여러 유수의 의학잡지에 사례보고가 되고 있다. 최근 2월 11일까지 중국의 7만 2,314명 환자를 분석한 자료가 발표되었는데, 약 1%에서 무증상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의 무증상 감염자에서 얼마나 사람간 전파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최근 2월 11일까지 중국의 7만 2,314명 환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은 2.3%(1,023명)이고, 특히 우한 지역에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았다. 비교적 건강한 의료인 감염의 경우 사망률은 0.3%로 보고되었다. 여기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든 우한과 같이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전파 사례가 늘어나고, 그 지역의 의료자원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한과 같이 사망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갑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의료시스템에 상당한 부하가 생겼다. 청도 대남병원과 같이 취약자에게 감염이 일어났을 때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치사율이 사스, 메르스에 비해 다소 낮아도 전파력이 아주 높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결국 사망자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다만, HIV 치료 약제처럼 일부 다른 치료로 사용하는 약제가 실험실에서 효과가 있어서 사용해 볼 수 있다. 이 약제는 이전에 사용했던 경험이 풍부하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고 추정된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은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 유행을 종식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무엇이 궁금한가요?

더 보기

#1

반려동물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나요?

동물마다 호흡기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고 반려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쥐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쥐에 바이러스를 주입해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 코로나19가 사람에게서 반려동물로 또는 반려동물에게서 사람으로 감염이 증명된 사례 보고는 없다.

#2

마스크가 없는데 재사용해도 되나요?

일회용 마스크를 기준으로 외출 시 한번 사용하고 실내에 들어와서 벗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다만, 최근 식약처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해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마스크가 젖게 되면 필터 성능이 떨어져서 예방효과가 떨어진다.

#3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장소는 안전한가요?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변 환경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만 열과 소독 약제로 금방 제거된다. 따라서 의료기관, 식당 등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장소라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소독한 경우라면 안전하니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

판소리『춘향가』속 불후의 명곡,『쑥대머리』

글 김은진 I 방송작가
그림 강수정 I 일러스트레이터

1961년 3월, 서울 시청 앞에는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수백 장의 만장이 늘어선 꽃상여를 메고 뒤를 따르는 200여 명의 여류 명창들이었다.

김소희 명창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소리꾼들이 상여소리를 하고 수많은 여류 명창들이 상여 끝자락을 잡고 뒷소리를 부르며 흐느꼈다. 상여 행렬이 시청 앞을 지날 무렵엔 상여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에 꽉 들어차서 인산인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장장 2km에 이르는 이 긴 상여 행렬 끝에는 100여 명의 각설이 패들이 추모하며 뒤를 따랐다.

가장 한국적인 소리광대를 떠나보내는 상여 행렬이었다.

상여의 주인공은 20세기 중반 한국인의 우상이었던 판소리명창 임방울이었다. 전라도 지방의 민간예술로 시작해 양반은 물론 흥선 대원군과 고종의 사랑까지 받았던 판소리는 한때 벼슬까지 받는 명창이 탄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금님 앞에는 나가본 적도 없고 벼슬은 커녕 인간문화재도 되어 본 적 없이 한평생을 광대로 살았던 사람. 그러나 대중들에게 사랑받으며 국창이라는 칭호로 불리고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를 치른 소리꾼. 그가 바로 임방울 명창이다. 그는 데뷔 무대에서『쑥대머리』를 불러 화제가 되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의 인기는 더 대단했다. 그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대중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빗발쳤고 콜롬비아, 빅터, 오케이레코드 같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음반회사들이 앞다퉈 그의『쑥대머리』가 담긴 음반을 취입했다. 이 노래는 조선뿐 아니라 일본, 만주에까지 퍼져 국내외에서 백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 기록을 세웠다. 당시의 축음기 보급률을 생각한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판매량인 셈이다. 동시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받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임방울의『쑥대머리』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그의 노래를 '지상 최고의 연가'로 첫손가락에 꼽고 있다.

『쑥대머리』는 판소리『춘향가』의 한 대목이다. 감옥에 갇힌 춘향이가 목에 칼을 쓰고 머리칼은 마구 헝클어진 채 사랑하는 연인 이몽룡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춘향은 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노여움을 산 죄로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힌다. 그녀는 점차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눈앞에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울어대는 감옥에서 이제 곧 죽게 될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다.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까지 겹쳐지면서 외로움과 슬픔은 더해만 간다. 바로 그 장면에서 눈물로 부르는 노래가『쑥대머리』이다. 따라서 판소리『춘향가』에서 가장 서글프고 애절한 노래 중 한 곡인 것이다.

'쑥대머리'란, 다듬지 않아서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뜻하는데, 현재 그녀가 어떤 처지인가를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춘향의 슬픈 심정을 계면조로 묘사하면서 처절하게 부르는 이 곡은 임방울 명창의 데뷔작이자 대명사이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한국인들에겐 식민지의 슬픔을 담고 있는 소리이면서 동시에 위로를 주었던 노래였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고통에 가슴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쑥대머리』를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춘향의 슬픔이 곧 자신의 슬픔이요, 춘향의 고통이 곧 자신의 것인 양 공감하며 노래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건 아닐까?

임방울 명창을 통해 불후의 명곡이 된 노래『쑥대머리』는 그 자체로도 감동을 주지만 현대인의 감성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조광재 작곡 강호중의 노래로 부활한『쑥대머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실내악단 슬기둥에 의해 새 생명을 얻는다. 원곡의 가사를 인용해 국악가요로 변신하며 판소리의 틀을 벗어나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요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후『쑥대머리』는 박애리의 노래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2008년 한의사이며 동시에 작곡가인 오지총이『춘향가』를 바탕으로 한 창작영상연극『Mr.방자』의 OST를 작곡했는데 이 음반에 담긴 곡이 바로 이 곡이다. 해금, 가야금, 현악 4중주, 피아노 반주로 국악과 발라드를 절묘하게 섞은 이 곡은 오늘날까지도 박애리의 대표곡으로 사랑받고 있다. 2015년에는 TV 프로그램『너의 목소리가 보여』'거미' 편에서 사과아가씨 이윤아가 불러서 화제가 되었고 이후 엄청난 동영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인의 심금을 울리던『춘향가』속 불후의 명곡『쑥대머리』는 평생 양복 입기를 꺼려해서 흰색 한복 두루마기를 즐겨 입었고, 공연 때도 소리가 변하는 게 싫어서 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임방울 명창의 시대를 지나 오늘날 대한민국 대표 춤꾼 팝핀현준의 춤과 박애리의 노래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관통하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명곡의 힘이 아닐까? Ⓗ

사우의 글

내 인생의 성악

글 김성목 I 현대미포조선 기장설계부

어느덧 입사한 지 11년이 지났다. 회사의 삶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고, 어제의 삶이 오늘이 삶인지 내일의 삶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솟아올랐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건 분명했다.

그 무렵 우연히 유튜브에서 '성악 발성에 대한 유튜브'를 보게 되었다. 성악에 대해서 무지했던 나였지만 "어, 이거 재미있는데? 나도 저렇게 멋지게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었고 무작정 따라 하게 되었다. 처음엔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연습해서 목이 쉬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적당한 연습실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헤맨 적도 있었다. 그러기를 1년. 아직은 아마추어이지만 그래도 복식 호흡, 비강 공명, 두성, 성대 떨림 등 어느 정도 배운 거 같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도 언젠가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멋지게 노래하고 싶다.

Editor's Note | Story +는 사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를 모아 함께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사우의 글과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잡학사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거진 H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사우들 인생의 소소하지만 특별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친 [ ] 는 무엇인가요? 사람, 사건, 사물,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목과 사연(500자 내외/A4 반 장 분량)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우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목소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울림

글 웹진 편집실

더 보기

#모든 노래는 성악이다

성악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즉 기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본래 장르의 구분 없이 사람의 목소리로 연주하는 모든 음악을 총칭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중에서도 서양 클래식 음악 장르에 속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성악은 순수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악기의 반주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악과 완전히 분리해 생각하기는 어렵다. 순수한 기악과의 가장 큰 차이는 노랫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가사가 있는 음악, 즉 노래는 모두 성악인 셈이다.

#성대의 진동으로 만들어지는 소리

발성이란 노래를 부를 때 폐로부터 나온 공기가 목구멍의 아랫부분인 후두 가운데에 있는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목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저음을 낼 때는 성대 아래쪽이 진동하여 가슴이, 고음을 낼 때는 성대 위쪽이 진동하여 머리가 울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각각 흉성, 두성이라고 한다. 공명은 목구멍의 윗부분인 인두(咽頭)에서 주로 일어난다. 흔히 머리와 가슴에서 소리를 공명시키면 두성과 흉성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머리와 가슴에는 소리를 공명시킬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성악가의 음역 따라 불리는 이름 달라

성악가는 보통 음역에 따라 구분되는데 남성 성악가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나뉘고 여성 성악가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콘트랄토로 나뉜다. '여자 중 가장 낮은 음역을 내는 성악가'는 흔히 알토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알토는 합창에서 여자 중 가장 낮은 '음역' 자체를 칭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자 중 가장 낮은, 즉 테너와 겹치는 음역의 성악가는 콘트랄토라고 부른다. 콘트랄토는 여성 음역을 소화하는 남성 성악가인 카운터테너보다도 수가 적을 정도로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알토 파트는 메조소프라노가 맡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중창, 합창, 제창…뭐가 다를까?

성악은 연주 형태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독창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오페라의 아리아 대부분은 독창 형식으로 되어있다. 중창은 성부마다 성악가 한 명이 배정되어 몇 사람이 둘 이상의 성부를 함께 노래하는 형태다. 특히 오페라에서 인물들간의 성격과 감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수단으로 쓰인다. 합창은 두 성부 이상으로 된 음악을 여러 사람씩 한 성부를 맡아가며 함께 연주하는 형태다. 우리에게 친숙한 아카펠라가 바로 무반주 합창을 뜻하는 말이다. 애국가를 부를 때처럼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음으로 노래는 부르는 것은 제창이라고 한다.

#세계 최초의 노래, 후르리인의 찬가

1950년대 고고학자들이 시리아의 도시 우가리트에서 3,400년 된 점토판 29개를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인 6번 점토판 만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학자들은 이 점토판에 새겨져 있던 바빌로니아 설형문자를 20년에 걸쳐 번역해냈다. 그 과정에서 아래 두 줄이 악보 역할을 해 멜로디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곡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세계 최초의 노래 『후르리인의 찬가(Hurrian Hymn No.6)』 다. 수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음악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멜로디를 복원해 냈고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 들어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 윤심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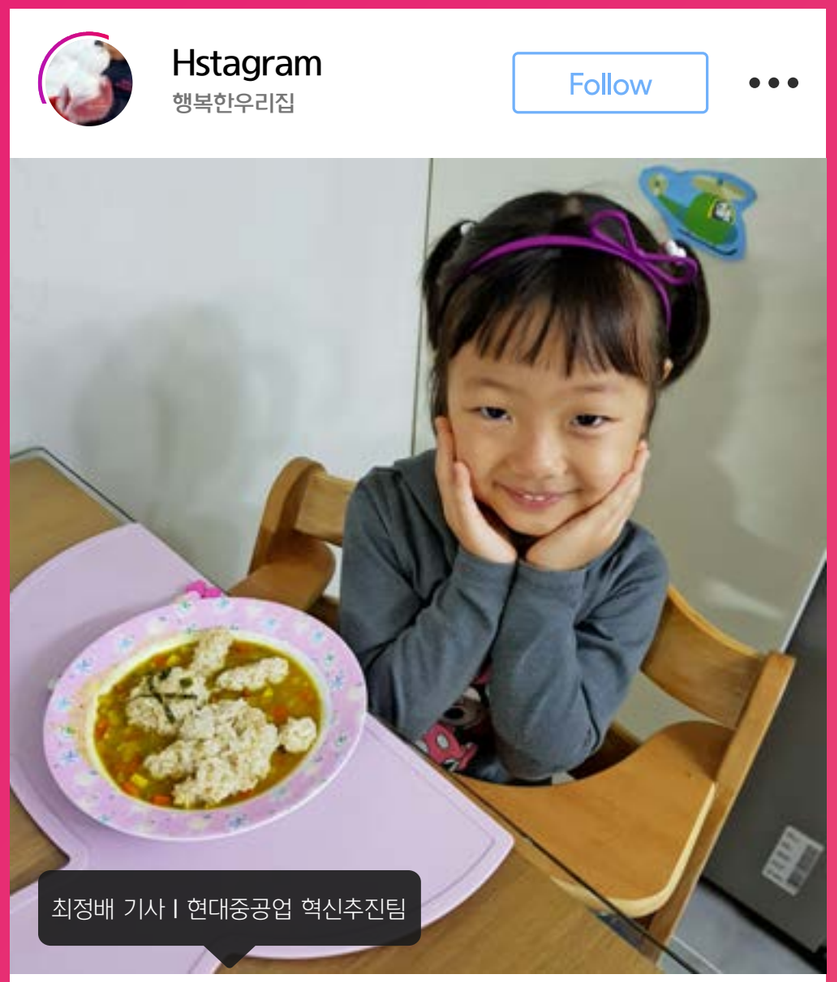
한국 최초의 전문 성악가로 꼽히는 사람은 윤심덕이다. 윤심덕은 1897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음악에 재능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도쿄음악학교에 유학을 보냈는데, 윤심덕은 도쿄음악학교 최초의 조선인 학생이었다. 음악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해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유부남 극작가 김우진과의 동반 자살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당시 사건은 신문에 대서특필될 만큼 화제였고, 지금도 수많은 작품 속에서 윤심덕의 일생이 다뤄지고 있다. 사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로 꼽히는 『사의 찬미』 가 발표되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

#Hstagram

맛있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Editor's Note | Hstagram은 매달 주제를 정해 사우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3월호에는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맛있는 음식' 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4월호의 주제는 '꽃'입니다.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키워드 3개를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우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정유진 사원 | 현대중공업 엔진발전영업부

#타코타코파티 #이순간멕시코
#나름건강식이라구요

홍순욱 기사 |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생애첫아이스크림
#아배불렁 #온몸으로먹어버림

진현승 기사 |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품질경영부

#기생충 #채끝짜파구리
#요리스타그램

황성은 사원 | 현대미포조선 종합설계부

#가장중요한연례행사 #엄마생신
#올해도사랑해요

강재호 상무 | 현대중공업

#출장의작은기쁨 #맛집투어
#카타르도하

박종환 대리 | 현대오일뱅크 건설2팀

#가산동옛날닭꼬치 #석쇠불맛
#직장인소울푸드

이번 호에 실린 글을 읽고 아래 퀴즈의 정답을 찾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히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소속 회사, 부서,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기한: 2020년 3월 31일

애플 에어팟 2세대
(2명)

영화관람권
(10명)

1 이번 호에 소개된 차세대 친환경 5G 전략산업에 주력하는 그룹사는?

① 현대오일뱅크 ② 현대일렉트릭 ③ 현대건설기계

2 울산소재 그룹사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한 활동은?

① 마스크 기부 ② 단체헌혈 ③ 손 소독제 제작

3 3월호 〈매거진 H〉 사우의 글 주제는?

① 판소리 ② 성악 ③ 뮤지컬

2월호 퀴즈 정답 **1.** ② 1382 **2.** ③ 보호아동지원 사업 **3.** ③ 현대건설기계

당첨자 (선정방식: 정답자 중 랜덤 추첨)

애플 에어팟 (2명)

권 훈 | 현대중공업지주 응용제어연구팀
이광희 | 현대중공업 전장설계부

영화관람권 (10명)

곽겸명 |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관리부
권병훈 | 현대중공업 엔진기계프로젝트지원부
김준영 | 현대중공업 조선품질경영1부
김효찬 | 현대오일뱅크 전기설비팀
류호진 | 현대중공업 선체설계부
배성열 | 현대중공업 조선배관구매팀
성완지 | 한국조선해양 국제법무팀
윤준형 | 현대중공업 특수선선체생산부
정우곤 | 현대중공업 해양기술영업부
조유진 | 현대글로벌서비스 마린서비스부

질병관리본부
KCDC

해외감염병 NOW

1339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홈페이지 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거진 H는 사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룹 웹진입니다. 읽고 난 소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점, 소개하고 싶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주세요. 보내실 때 소속과 성함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magazine@hhi.co.kr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www.hyundai-holdings.co.kr

Copyright©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All Rights Reserved